

◆ KOEMA 消息 ◆

東南亞 市場開拓團, 商談성과 4,000만弗

— 필리핀 등 4개국 상담건수 280여건에 달해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5일(12일간)까지 필리핀 등 東南亞 4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 진전에 따른 대규모 전기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예상되는 동남아 지역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에 파견된 금번 시장개척단에는 本 振興會 任寅柱 상근부회장을 비롯 商工資源部 崔容元 사무관과 重電業界 大·中小企業 10개社가 참여해 총 상담액 4,000만弗, 상담회사 및 상담건수만도 160개社 280여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번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전기공업의 수출규모는 '92년말 기준 98,146천불로 수출 주종품목은 변압기, 전선, 변환기기, 전기로, 배전제어장치 등이며 각국별 수출규모는 필리핀이 13,246천불, 인도네시아 39,700천불, 말레이시아 26,825천불, 태국 18,375천불 등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최근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경기 활황과 송배전 관련 정부부문의 인프라 스트럭처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역경제 개발 및 산업개발에 따른 대규모 입찰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우리제품의 홍보와 기술교류 및 입찰활동 강화, 현지 합작투자 등의 장기적인 시장 진출전략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할 경우 우리나라 전기공업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 향후 몇년간은 우리 전기업계가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는 최대의 수출시장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한번씩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들 지역의 국제입찰 유력인사방한 초청 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수출시장 개척단이 방문한 필리핀 등 4개국의 전기공업 현황은 「NEWS LETTER 電機工業」을 통해 '93-15號부터 4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93 韓電支援 生産技術開發 對象課題 選定

- 2백9개 신청과제 중 61개 선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重電機器 기술개발에 추가로 지원되는 300억원의 韓電 R & D 자금의 지원대상 과제 선정을 위하여 그동안 과제를 접수한 결과, 총 209개의 개발과제가 신청되었다.

이에따라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6월 8, 9일 2차에 걸친 분과별 심의위원회와 6월 29일 최종 심의 위원회를 통해 209개 과제중 에너지절약기술, 전력설비제어 기술 등 전력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한 기술 중 기술개발 시급성, 수출기대효과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61개과제를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전력기기분야가 26개과제, 자동화·정보화 및 첨단전력 전자분야 10개과제, 기타 전기기기 및 에너지 절약제품 분야 25개 과제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7월중 상공자원부 공고와 함께 한전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알 림

○ 본 진흥회에서는 「NEWS LETTER 電機工業」을 업체와 함께 꾸미는 전기공업 정보지로 키워가기 위하여 일부면 (표 3, 4)을 광고면으로 할애, 회원사의 새로운 정보와 기술 개발 및 신상품 소개는 물론 각종 행사 등의 홍보를 무료로 게재코자 합니다.

○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고게재 문의》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조사과

TEL : 424-4901/4

FAX : 424-4900